

사업 요약 보고

NSW 정부는 시드니가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사업하기에 좋으며 방문하기에 좋은 곳으로 변모하는데 일조하는 대대적인 교통 기반시설 세대교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내 거리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남동부 지역 거주자의 시내 진입을 개선하고, 북부와 서부와 남서부 거주자들의 연결 교통편을 더 용이하게 하고자 대규모 건설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수십년만의 최대 규모인 시내 중앙 상권 업그레이드에 민간 및 주정부에서는 130억불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드니가 장차 호주를 대표하는 국제 도시로서 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번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시내 중앙 상권 및 남동 경전철이 생기면 서클러 키와 센트럴 스테이션 사이, 그리고 더 나아가 킹스포드와 랜드워크를 오가며 많은 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는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윈야드와 타운홀 사이에는 보행자 구역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시내 중심 상권 도로를 이용하던 최대 220대에 달하는 버스가 현재 건설중인 경전철과 새롭게 정비한 버스 노선망이 도입되면서 거리에서 사라지게 되어 혼잡을 덜어주게 될 것입니다.

윈야드, 타운홀, 뮤지엄 역이 새로이 단장되고 타운홀, 윈야드, 센트럴, 서클러 키, 뮤지엄, 마틴 플레이스에 새로운 환승 시설이 들어서면 이용자들의 접근성, 편이, 운송규모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윈야드 보도가 생기면 윈야드 역과 바랑가루 사이를 6분만에 막힘 없이 걸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바랑가루 페리 역은 이곳에 새로이 들어서서 시드니의 최신 상권을 찾는 방문객과 근로자 및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될 수천명의 이용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내 중앙상권의 자전거 도로망이 연결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요 도로망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객들의 안전이 향상되고 교통의 흐름도 보다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시내 중앙상권 외곽으로 가면, 웨스트코넥스가 건설될 경우 서부와 남서부 거주자들의 시내 및 공항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파라마타 로드는 도로 주변의 지역사회로 환원이 될 것이며, 노스코넥스 완공시M1 과 M2 사이로 난 페난트힐즈 로드를 사용하던 트럭 수천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변신을 가지고 올 사업은 시드니 메트로와 하버 밑을 횡단하는 철로일 것이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시내 중앙상권의 신설 지하철역 4곳과 연결이 되어 2분 꼴로 시내 지하 양방향으로 지하철 운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평소에 시내로 들어오거나 돌아서 가실 때 사용하던 노선이 영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노선 상태를 확인하시고 집을 나서기 전 여행 계획을 세우시고 충분한 시간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계획과 목적지 교통 상황을 아시고 싶으시면 <http://www.transportnsw.info/>를 방문해주세요.